

삼상3:1-9/아이 사무엘

아이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영적 리더인 사사 엘리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500년의 말년을 1-2절에 기록합니다.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와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두었고

1.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1)

그럼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엘리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하:쇼라트라고 하는데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굶은 일을 하면서 섬긴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제사장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나. 그러나 그들에 대한 내용은 다릅니다. 엘리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 그 아들들의 소행이 2:12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야할 예물을 자신들을 위해 먼저 챙깁니다. 2:22절 이하에 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엘리제사장은 크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식들을 제사를 주관하는 일에서 제외시키지도 않았습니다.

2: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살펴볼 때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3: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뭐 별일 있겠나 한 것입니다. 40년동안 제사장 일 하면서 별일 없었는데... 교회를 나오지만 자기의 목적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도 그 목적이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면 목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골3:22-23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1)

3:1의 말씀에 보면 그 시대에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세의 특징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둘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하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갈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씀의 흉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3.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1)

이상을 하: '하존' 이라고 말합니다.(잠29:18) 이상 또는 환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의 해석을 빌리면 '자아 의식은 분명하 가운데 다만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신적 계시의 전달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계시입니다. 영성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비전으로 해석합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는 차원에서는 비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필수조건인 임재의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리더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인 그가 비전이 없으니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할 수 없었고, 백성들도 비전을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망해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함입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는 말은 엘리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말해줍니다.

올해 우리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선교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스페인 말라카의 남사현 선교사와 모슬렘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태국에서도 박대성선교사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예언하며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세대를 이끄는 교회가 됩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